

單発音読クリニック 上トレ11 女性に優しい制度の落とし穴

A 씨는 올해 초 자녀를 출산한 데다 시어머니 간호까지 해야 한다.
친구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이용해 보라고 권하지만 그는 야근도 잦은
풀타임 업무를 고집한다.

“조직 내 경쟁에서 밀리고 싶지 않습니다. 휴직을 하거나 좀 더 수월한
업무로 전환하면 승진이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
어떻게 그런 제도를 이용하겠어요.”

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해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려는
수많은 여성에게 A 씨의 고민은 남 얘기 같지 않다.